

군사학과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의 관계

안경한*(선문대학교 박사과정)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군사학과 대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심리상담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받는데 장애물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복지 실천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2020년 4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중 군사학과가 개설된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하여 총 231부의 자료를 EXCEL 2016, SPSS 18.0,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과 불안은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군사학과 대학생들이 해당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심리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와 기관,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군사학과 대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노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군사학과, 우울, 불안,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

*ankyh1@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더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6개의 조사대상국 중 한국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시 타인에게 의지한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OECD, 2015). 그 원인으로 한국은 치매를 제외한 정신질환 진료비가 전체 의료비 지출의 3%에 불과하고, 정신질환 초기에 최적의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조선일보, 2014). 즉, 우리나라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적절히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Yoo, Goh, & Yoon, 2005).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이라고 한다(Steffl & Prosperi, 1985). 일부 연구자들은 경제적, 시간적 비용문제,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주변 요인들이 서비스 갭 현상의 원인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Horgan, 1985). 그러나 대부분의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물리적 접근성이 용이한 대학상담센터에서도 유사한 서비스 갭 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 중 많은 수가 상담센터 이용을 꺼리고 있다(김범선, 전윤경, 전진실, 2008; Walter, Yon, & Skovholt, 2012).

Kushner와 Sher(1989, 1991)가 제시한 상담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Kushner와 Sher(1989, 1991)은 Miller(1944)의 고전적 접근-회피 갈등(classic approach-avoidance conflict)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을 접근요인들과 회피요인들로 나누어 이러한 요인들 간 갈등의 결과가

전문적인 도움추구 행동 여부를 결정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 가까운 지인의 상담경험, 만족스러운 과거 상담 경험, 상담 전문성에 대한 신뢰 등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을 높이는 접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 우려, 불만족스러운 과거 상담 경험 등은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할 가능성을 낮추는 회피요인들로 작용하여 도움추구 행동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박준호, 서영석, 2009).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의 경우, 어려움 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행 연구에서 심리적 어려움이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Kushner & Sher, 1989; Rickwood & Braithwaite, 1994). 반면,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어려움 수준이 낮으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Komiya, Good, & Sherrod, 2000). 이러한 결과는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개인이 느끼는 불안이나 태도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은 상담이용 의도와 실제 전문적 도움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제시하였다(신연희, 안현의, 2005; 이선희, 2007).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곽현선(2012)의 연구에서도 우울이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뿐만 아니라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로 진단 받은 사람들이 도움을 추구하는 비율은 각각 13%와 25%로 나타났으며(Roness, Mykletun, & Dahl, 2005), 경제적 스트레스(Lim, Heckman, Montalto, & Letkiewicz, 2014), 사회심리적 스트레스(Onditi, Moses, & Masath, 2014), 문화적응 스트레스(Tung, 2011)와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역시 도움추구 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적응상의 심리적 문제들도 제 때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남숙경, 이상민, 2012). 따라서 상담심리학과 상담자들은 서비스 갭을 줄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사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과 불안이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학생 시기는 향후 진로나 다양한 문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이나 경험을 쌓기 위해 자신의 결정에 관련된 내적, 외적 요소를 종합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대학생의 심리상담에 대한 실제적이고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외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대학생에게 맞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유훈, 김계현, 2015; 이지원, 이기학, 2014; 최윤정, 2015; Hughes, Gibbons, & Mynatt, 2013; Obi, 2015; Rowell, Mobley, & Kemeret, 2014). 그러나 대학생의 심리상담에 관련한 연구와 실재를 통합하고 파악하는 연구의 경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와 향후 국내 안보와 올바른 병영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군사학과 재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진로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군사학과 대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서비스 태도의 선행요인으로서 우울과 불안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심리상담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사학과 대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심리 상담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받는데 장애물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실천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대학생들의 심리상담 분야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04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중 군사학과가 개설된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불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총 231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성별 구성은 남학생이 124명(53.7%), 여학생이 107명(46.3%)로 남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년은 2학년이 123명(53.2%)으로 가장 많았고, 1학년이 47명(20.3%), 3학년이 46명(19.9%), 4학년이 15명(6.5%)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중이 200명(86.6%)으로 가장 많았고, 하가 23명(10%), 상이 8명(3.5%)로 나타났다. 심리상담경험은 없음이 158명(68.4%)으로 가장 많았고, 있음이 73명(31.6%)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125명(54.1%)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45명(19.5%), 불교가 28명(12.1%), 기타가 18명(7.8%), 천주교가 15명(6.5%)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24	53.7
	여성	107	46.3
학년	1학년	47	20.3
	2학년	123	53.2
	3학년	46	19.9
	4학년	15	6.5
경제수준	하	23	10.0
	중	200	86.6
	상	8	3.5
심리상담경험	있음	73	31.6
	없음	158	68.4
종교	기독교	45	19.5
	불교	28	12.1
	천주교	15	6.5
	무교	125	54.1
	기타	18	7.8
	합계	231	100.0

2. 측정도구

첫째, 군사학과 대학생들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척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한 전경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어휘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우울은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군사학과 대학생들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Spielberg, Gorsuch와 Lushene(1970)의 연구에서 개발된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국내의 실정에 맞게 번안한 김정택(1978)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어휘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불안은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군사학과 대학생들의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Ægisdóttir와 Gerstein(2009)가 개발한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신념(BAPS: Beliefs About Psychological Services)을 국내의 실정에 맞게 번안한 김태선(2011)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어휘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는 낙인내성 8 문항, 상담의향 6문항, 전문성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수집된 231명 전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5개 요인, 38문항이 포함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개념신뢰도, AVE, 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설정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5개의 잠재변수가 각각에 해당되는 측정문항을 설명하도록 설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5개 요인, 38문항의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1935.673$, $df=655$, $p=.000$, $Q=2.955$, $TLI=.845$, $CFI=.855$, $RMSEA=.092$ 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5이상으로 나타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입증

표 2.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하위 요인	문항	SRW	C.R(t)	개념 신뢰도	AVE	Cronbach' α
우울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낌	.796	9.898***	.940	.611	.942
		우울	.856	9.412***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음	.834	9.631***			
		귀찮게 느낌	.765	10.05***			
		정신을 집중하기 힘들	.808	9.824***			
		평소보다 말이 적음	.836	9.614***			
		울적한 기분	.739	10.149***			
		식욕이 없음	.823	9.722***			
		능력이 부족	.764	10.055***			
		행복하지 않음	.718	10.216***			
불안		쉽게 피로	.744	10.193***	.938	.604	.940
		울고 싶은 심정.	.801	9.958***			
		행복하길 원함	.730	10.236***			
		마음을 빨리 못 정하여 실패	.823	9.824***			
		너무 많은 어려운 문제	.682	10.352***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	.919	8.382***			
		무슨 일이건 힘들게 생각	.698	10.318***			
		자신감이 부족하다.	.864	9.458***			
		위기나 어려움 회피	.844	9.657***			
		울적	.745	10.19***			
심리 상담 서비스 태도	나인 내성	찾아가기 어려움 [Ⓢ]	.819	10.203***	.957	.740	.954
		상담은 나의 나약함을 인정 [Ⓢ]	.913	9.432***			
		상담은 인생의 오점 [Ⓢ]	.755	10.386***			
		의논하면 안되는 문제 있음 [Ⓢ]	.912	9.457***			
		자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	.964	7.333***			
	전문 성	상담은 좋은 방법이 아님 [Ⓢ]	.952	8.173***			
		전문가와 대화가 어려움 [Ⓢ]	.916	9.387***			
		필요시 상담	.628	10.559***			
		도움을 받을 수 있음	.858	10.343***			
		대화나누기 좋음	.820	7.919***			
상담 의향	비밀이 보장되어 좋음	.806	6.335***	.918	.657	.919	
	전문가는 지식이 많아 유용	.785	10.369***				
	친구에게 상담 추천	.658	9.853***				
	사적인 고민을 털 수 있음	.917	8.555***				
	심리상담 전문가는 도움	.946	7.467***				
찾아가고 싶을 수 있음	.646	8.326***					
문제 시 상담 요청	.796	8.569***					
고민 상담 요청 가능	.898	8.865***					

Ⓢ= 역채점 문항

되었다. Osman, Purwana와 Saptono(2017)에 따르면 증분적합지수가 .8이상일 경우, 이를 수용 가능한 수치로 제시하였다. 또한 각 하위요인은 개념신뢰도 .7이상, AVE(집중타당도) .5이상, Cronbach α .7이상의 기준치를 충족하여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이용된 척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뢰도 검증은 개념신뢰도, AVE 및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하위요인들의 정규성 검증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하위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사학과 대학생들의 우울, 불안과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분석을 하기전 선행연구(김기형, 박중길, 2009; 양대승, 강현우, 2017; 이수란, 2014)와 측정모형과 검증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하위요인을 구성 관측변수들의 항목묶음(Item parceling)을 실행하였다. 3개의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6개 하위요인들의 정규성 및 하위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하위변인의 평균점수는 2.212~ 3.964의 평균이 분석결과 나타났고, 표준

편차, 왜도(≤ 2.0), 첨도(≤ 4.0)에서 이상치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하위 요인들의 점수 분포가 정규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하위요인들간 $-.578 \sim .779$ 수준으로 나타났고, 요인 간 상관계수가 $.8$ 이상으로 나타난 요인들은 존재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판단하였다.

표 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

요인	M(SD)	왜도	첨도	우울	불안	낙인내성	상담의향	전문성
우울	2.211(.847)	.387	-.416	1				
불안	2.335(.834)	.049	-.947	.779**	1			
낙인내성	3.964(.862)	-.406	-.856	-.486**	-.578**	1		
상담의향	3.234(.881)	-.016	-.465	-.304**	-.301**	.296**	1	
전문성	3.653(.765)	.029	-.570	-.532**	-.537**	.436**	.608**	1

**p<.01

2. 연구가설 검증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2009.264$, $df=658$, $p<.001$, $TLI=.837$, $CFI=.847$, $RMSEA=.074$ 으로 비교적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 간 경로를 살펴본 결과, 가설 1-1로 설정한 우울이 낙인내성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 경로계수(SRW)는 $-12.724(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2로 설정한 우울이 상담의향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 경로계수(SRW)는 $-1.531(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3으로 설정한 우울이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 경로계수(SRW)는 $-12.721(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1로 설정한 불안이 낙인내성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 경로계수(SRW)는 $-15.262(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설 2-2로 설정한 불안이 상담의향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 경로계수(SRW)는 -1.969($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3으로 설정한 불안이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 경로계수(SRW)는 -11.994($p < .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설검증

가설	RW	SRW	S.E.	C.R.(t)
H 1-1 우울 → 낙인내성	-12.724	-15.935	6.17	-2.062*
H 1-2 우울 → 상담의향	-1.559	-1.531	0.446	-3.499***
H 1-3 우울 → 전문성	-11.285	-12.721	4.434	-2.545*
H 2-1 불안 → 낙인내성	-12.342	-15.262	6.254	-1.974*
H 2-2 불안 → 상담의향	-1.969	-1.908	0.459	-4.292***
H 2-3 불안 → 전문성	-11.994	-13.351	4.497	-2.667**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본 연구는 군사학과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학과 대학생의 우울은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희경(2004)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우울증상에 따른 도움추구태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소극적인 도움추구태도가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조현주, 임현우와 조현진(2008)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우울증상의 특징과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우울감이 높을수록 도움추구가 소극적으로 나타났으며, 욕구 요인인 우울감은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욕구 요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박현숙, 민소영, 2005; 이기영 외, 2010). 이에 대해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군사학과 대학생들의 우울이 증가할수록 심리상담 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추구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실제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낮은 것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인식 변화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학과 대학생들이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제공받기 위한 단계의 첫 번째는 주변인의 문제인식일 것이다. 문제 인식 외,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인식과 적절한 서비스의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군사학과 대학생의 불안은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남희 등(2012)과 Sourander 등(2005)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외현화 문제보다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정신과적 진단이나 문제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청소년들의 내적 심리상태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이 반영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Zwaanswijk(2003)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 인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Wu(1999)는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심리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군사학과 대학생들이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을 교육하고, 교수나 대학 관계자들과 같은 주변의 제공자와 신뢰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의 도움도 중요할 것이다. 이는 청소년과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Rickwood, Deane & Wilson, 2007). 또한 대학은 교내 상담사 등을 갖추고, 지역의 심리상담 서비스 기관이나 전문가들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과 SNS를 통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개입도 도움이 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군사학과 대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심리상담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받는데 장애물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복지 실천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2020년 4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중 군사학과가 개설된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하여 총 231부의 자료를 EXCEL 2016, SPSS 18.0,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과 불안은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군사학과 대학생들이 해당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심리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와 기관,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군사학과 대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노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군사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타 전공이나 타 지역의 대학생들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를 종속변수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Aegisdóttir 와 Gerstein(2009)는 태도보다 의도가 소비자들의 행동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언급하여 실제 군사학과 대학생들이 실제 상담에 참여할지에 대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상담의도에 대한 척도개발과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심리상담 서비스 참여행동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곽현선(2012). **대학생의 우울과 전문적 도움추구관계에서 애착 및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김기형, 박중길(2009). 대학 운동선수의 지각된 자율성 지지와 기본욕구 및 동기적 성향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3), 33-48.
- 김남희, 임기영, 정영기, 노재성, 김현수, 신경민, 신윤미(2012).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요구도와 실제 이용과 연관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정서 및 행동상의 요인. **신경정신의학**, 51(6), 409-415.
- 전윤경, 김범신, 진진실(2008). 대학생의 상담에 대한 태도. **인간이해**, 29(0), 49-59.
- 김정택(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Spielberger의 STAI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희경(2004). **기혼여성의 우울증상과 도움추구 태도에 관한 통합모형검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남숙경, 이상민(2012).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단축형 척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대상, 성별, 연령, 상담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1), 341-366.
- 박준호, 서영석(2009). 남자 대학생들의 성역할갈등과 상담 의도와와의 관계: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5-48.
- 박현숙, 민소영(2005). 취학아동 양육자의 사회기술훈련, 행동치료, 부모교육 서비스 이용의향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1, 5-34.
- 신연희, 안현의(2005).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77-195.
- 양대승, 강현우(2017). 태권도 품새 선수의 스포츠자신감, 심판판정인식 및 경기력

- 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6(6), 405-415.
- 유훈, 김계현(2015). 장애대학생의 부모애착과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6(5), 157-170.
- 이기영, 최송식, 박현숙, 임현정.(2010). Andersen과 Newman 모델에 근거한 농어촌 지역 노인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의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257-278.
- 이선훈(2007). 한국인의 정신건강 도움요청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7, 122-151.
- 이지원, 이기학(2014).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의사결정문제와의 관계: 정서적 어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55-87
- 전검구, 최상진, 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조현주, 임현우, 조선진(2008). 성인남녀의 우울감 특징과 전문적 도움추구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13(3), 283-297.
- 최윤정(2015). 대학생의 진로 문제의 개념화를 위한 진로 미결정의 잠재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6(3), 175-193.
- 황연미(2009). 여대생과 기혼여성의 정서표현억제태도와 우울 및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14(1), 173-198.
- Ægisdóttir, S., & Gerstein, L. H. (2009). Beliefs About Psychological Services (BAP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22(2), 197-219.
- Horgan, C. M. (1985). Speciality and general ambulatory mental health servic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6), 565-572.
- Hughes, A. N., Gibbons, M. M., & Mynatt, B. (2013). Using narrative career counseling with the underprepared collage stud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1(1), 40-49.
- Komiya, N., Good, G. E., & Sherrod, N. B. (2000).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138-143.

- Kushner, M. G., & Sher, K. J. (1989). Fear of psychological services and its relation to service utilizat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0*(4), 251-257.
- Kushner, M. G., & Sher, K. J. (1991). The relation of treatment fearfulness and psychological service utilization: An overview.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2*(3), 196-203.
- Lim, H., Heckman, S. J., Montalto, C. P., & Letkiewicz, J. (2014). Financial stress, self-efficacy, and financial help-seeking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5*(2), 148-160.
- Miller, N. E. (1944). Experimental studies of conflict. In J. M. Hunt (Ed.), *Personality and the behavior disorders (Vol. 1, pp. 431-465)*. New York: Ronald Press.
- Obi, O. P. (2015). Constructionist career counsel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An experimentalevalu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8*, 215-219.
- OECD(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 Onditi, H. Z., Moses, I., Masath, F. B. (2014). Psychosocial stressors and help-seeking behavior among undergraduate student teachers in Tanzania. *International Journal of Learning & Development, 4*(1), 98-114.
- Osman, N. Purwana, D. & Saptono, A. (2017). Do Performance Appraisal, Compensation And job Satisfaction Influence Employees' Loyalty Of Generation Y?, *Journal of Business and Behavioural Entrepreneurship, 1*(1), 35-49.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ickwood, D. J., & Braithwaite, V. A. (1994). Social-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help-seeking for emotional problems. *Social Science & Medicine, 38*(4), 563-572.

- Rickwood D. J, Deane, F. P, Wilson, C. J. (2007). When and how do young people seek professional help for mental health problems. *Med J Aust*, 187(7), S35-S39.
- Roness, A., Mykletun, A., & Dahl, A. A. (2005). Help-seeking behaviour in patients with anxiety disorder and depression.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11(1), 51-58.
- Rowell, P. C., Mobley, A. K., & Kemer, G. (2014). Examination of a group counseling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wi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7(2), 163-174.
- Sourander A, Haavisto A, Ronning JA, Multimäki P, Parkkola K, Santalahti P, et al. Recognition of psychiatric disorders, and self-perceived problems. A follow-up study from age 8 to age 18. *J Child Psychol Psychiatry*, 46, 1124-1134.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tefl, M. E., & Prospero, D. C. (1985). Barriers to mental health service utilizatio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1(3), 167-177.
- Tung, W. C. (2011). Acculturative stress and help-seeking behavior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Home Health Care Management & Practice*, 23(5), 383-385.
- Walter, J. P., Yon, K. J., & Skovholt, T. M. (2012). Differences in Beliefs About Psychological Servi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and One's Social Network.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0(2), 191-199.
- Wu, P., Hoven, C. W, Bird, H. R, Moore, R. E, Cohen, P., Alegria M, et al. (1999). Depressive and disruptive disorders and mental health service utiliza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38, 1081-1090.

- Yoo, S. K., Goh, M., & Yoon, E. (2005). Psychological and cultural influences on Koreans' help-seeking attitude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7*(3), 266-280.
- Zwaanswijk, M., Van der Ende, J., Verhaak, P. F., Bensing, J. M. & Verhulst, F. C. (2003).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 need and utilization.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42*, 692-700.

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 Attitudes according to Depression and Anxiety of Military College Students

An, Kyeong-Han(Sunmoon Univ.)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empirical basis of welfare practice to understand and improve obstacles to receiving professional services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due to psychological problem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 attitude according to depression and anxiety of military college students. To conduct the study, 2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two universities in Seoul and Gyeonggi area in April 2020, where military departments were opened. A total of 231 questionnaires were used, excluding 19 insincere questionnaires, using EXCEL 2016, SPSS 18.0, AMOS 18.0 program to perform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verification,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depression and anxiety had a negative effect on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 attitude. Through these results, the role of schools,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to improve the negative psychological problems that military college students can experience at the time of the year was presented and the military college students presented their own ways to recognize and improve the problems.

Key words: Military Department, Depression, Anxiety,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 Attitude

논문투고일 : 2021.03.31.

심사일 : 2021.03.10.

심사완료일 : 2021.04.30.